



손님내방

대만사료협회장 일행 한국의 사료산업 시찰차 내방



▲ 인사말을 하고 있는 본회 김정호 회장(사진왼쪽)과 대만사료협회 홍양곤 회장

세계 사료곡물가격의 폭등은 우리나라만의 어려움이 아닌가 보다. 우리와 사정이 비슷한 대만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상황인 것으로 보인다.

이런 가운데 홍양곤(洪堯昆) 대만사료협회장 등 한국의 사료산업 시찰단 일행 18명은 지난 10월 31일부터 11월 3일까지 4일간의 일정으로 한국사료협회와 국내 사료산업을 둘러보기 위해 한국을 방문했다.

본회 김정호 회장은 지난 11월 1일 (주)에스 씨 에프 김정인 부회장 등 일부 사료회사 대표자들이 함께한 가운데 홍양곤 회장 일행의 예방을 받고 상호 관심사에 관해 장시간에 걸쳐 논의를 가졌으며, 양 협회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교류와 협력을 갖기로 했다. 이들 시찰단 일행은 김정호 회장과의 면담 후 본회 사료기술연구소를 견학하였으며 연구소의 시설이 매우 선진화되어 있음에 찬사를 아끼지 않았다.

또한 시찰단 일행은 김정인 부회장의 안내를 받아 본회를 방문한 후, 대한제당과 천하제일사료 그리고 대한벌크터미널을 견학했다.

홍 회장의 이번 한국 방문은 한국에서는 과연 고곡가 시대에서 축산·사료산업이 어떻게 어려움을 이겨내는지, 앞으로는 어떤 방안을 가지고 극복해 나갈 것인지를 알아보기 위함으로 풀이된다. 홍 회장과의 간단한 인터뷰를 통해 그들의 한국 방문 목적을 알아본다.

- 이번엔 한국을 방문한 목적은.

△ 한국의 발전된 축산·사료산업을 둘러보고 앞으로 더욱 교류를 활성화 하기 위해서다. 대만이 하고 있지 못한 부분을 한국으로 부터 벤치마킹함으로써 대만의 사료산업 발전에 도움이 되도록 할 것이다.

한국사료협회를 방문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며 사료기술연구소의 시설이 매우 선진적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.

- 대만 역시 우리와 사정이 비슷해 사료원료의 해외 의존도가 높는데 요즘과 같이 국제 곡물가 폭등에 대해 대만은 어떻게 대처하고 있나.

△ 사실 뚜렷한 대응방안은 없다. 다만 극복 방안이라면 상품의 부가가치를 높이는 사료개발에 역점을 두고 있다는 점이다.

부가가치가 높은 펠릿사료 라든가 양어사료 개발에 역점을 둘 수도 있지만 이 보다는 외국으로부터 수입되는 축산물 보다 경쟁우위에 서기 위해서는 고품질의 사료개발을 통해 맛을 특화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. 여기에다 안전한 사료를 개발함으로써 외국 축산물과 차별화하는 것이다. 이것이 바로 부가가치를 높이는 상품개발인 것이다.



▲ 시찰단 일행에게 한국의 사료산업에 대해 본회 홍순찬 기획팀장이 설명하고 있다



손님내방

- 대만도 국제 사료곡물가격이 상승하면 배합사료가격을 그대로 반영하는가.

△ 그렇다. 일본과 같은 경우는 사료안정기금이 있어서 축산농가의 충격을 완화해 줄 수 있지만 대만은 그런 제도가 없다. 올해 들어 배합사료가격을 40% 가량 인상했다. 사실 이 문제에 대해서 몇 년 전부터 연구하며 고민해오고 있다. 그러나 아직 구체적인 방안이 없는 실정이다.

- 한국의 경우는 사료산업 해외진출을 적극 모색하고 있거나 이미 진출해 있는 기업이 적지 않다. 대만은 자국내의 어려움을 어떻게 타개하려고 노력하고 있나.

△ 대만 역시 한국과 마찬가지로 주로 동남아 지역으로 진출해 있다. 지난 1993년에 중국에 처음 진출했다. 지금은 베트남, 태국, 인도네시아, 말레이시아 등 현지에 사료공장을 짓고 판매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. 한국도 그런 것으로 알고 있다.



- ▶ 시찰단 일행을 환영하는 현수막.
- ▲ 본회 사료기술연구소를 견학하고 있는 모습.
- ◀ 대만사료협회 측은 양 협회간의 영원한 우의를 다지자는 뜻을 담은 현판을 선물했다.
(사진 왼쪽부터 (주)에스 씨 에프 김정인 부회장, 한국사료협회 김정호 회장, 대만사료협회 홍양곤 회장)